

##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언어 영역 듣기大本

1. 이제 라디오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 청취자와 함께 하는 '삶의 향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희 씨가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쓴 글을 들려주신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시 추억에 잠겨 보시죠.

여 :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 성냥갑에서 뼈죽이 나와 있는 성냥개비가 놀자고 한다. 무료함에는 특효약이라 속삭이는 성냥개비. 한번 믿어 보기로 한다. 한 개비를 놓고, 또 한 개비를 놓고, 그 위에 가로질러 또 나란히 놓고…….

처음에는 무심히 쌓아 올리지만, 조금씩 높아지면서 마음이 가기 시작한다. 어디 무너지지 않게 쌓아 볼까, 손이 조심스러워진다. 제법 높이를 갖추니 조바심도 생긴다. 무너지면 안 되는데, 손이 부담스러워 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바닥부터 착실하게 쌓을걸.

아차 하는 순간 소리도 진동도 없이 무너진다. 아래쪽에 있던 성냥개비들이 자기들에게 무심했던 시간을 원망하는 듯하다. 그때 미리 마음을 썼으면 덜 미안할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아닐까?

남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희 씨의 글이었습니다.

2.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제시된 화면을 보면서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스텔화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알아보을까요?

(효과음) 먼저, (가) 화면입니다. 파스텔화를 처음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파스텔을 이용해 그림의 완성도를 높였던 17세기 화가, 루벤스를 떠올리실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파스텔화는 15, 16세기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 두 화가는 습작을 할 때 빨간색 분필을 문질러 다양한 효과를 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빨강 분필을 파스텔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효과음) (나) 화면을 보세요. 18세기에 그려진 「풍파두르 부인」이란 작품입니다. 부인의 얼굴이 온화하게 보이죠? 피부의 부드러움과 윤기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나 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파스텔을 문지르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림의 좁은 부분에서는 종이를 사용하고, 넓은 부분에서는 솜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외에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효과음) (다) 화면입니다. 파스텔은 처음에 주로 스케치 연습 재료로 쓰이다가, 17,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떤 화가들이 파스텔을 주로 사용했을까요? 19세기 말에는 파스텔이 다른 재료들에 비해 휴대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빛이나 동작을 포착하는 데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했습니다. 드가 역시 독특한 질감에 매료되어 파스텔을 애용했지요.

(효과음) (라) 화면입니다. 파스텔화와 관련된 유의 사항입니다. 파스텔화를 그린 다음에는 반드시 아교풀이나 고무로 만든 정착액을 뿌려야 합니다. 그림의 색을 보호하고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정착액을 뿌리면 색깔이 다소 변하고 그림의 표면도 평평해지기 때문에 처음 그릴 때보다 재질감이 약화된다고 합니다. 이제 파스텔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 넓어졌나요?

3.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감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9볼트의 건전지입니다. 혀끝에 대면 찌릿함을 느끼죠? 그 까닭은 건전지의 전류가 혀로 흐르면서 혀의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감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외부에서 전압이 걸려, 근육이나 내장으로 전류가 흘러 몸에 충격을 주는 것이 감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정전기를 느끼는데, 이것도 감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전기의 경우는 전압이 높아도 흐르는 전류가 그다지 세지 않기 때문에 정전기 감전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류가 우리 몸에 흘러야 위험할까요?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50밀리암페어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압의 크기가 아니라 전류의 세기입니다. 또한 시간도 중요한데요, 센 전류라도 흐르는 시간이 매우 짧으면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약한 전류라도 흐르는 시간이 길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마른 손에 비해 젖은 손에서 전기 저항이 더 작기 때문입니다.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세지게 되고, 따라서 감전의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 전류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감전됐을 때 부상을 입는 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뇌와 심장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4~5. 다음은 대화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학생 : 아침부터 조는 걸 보니 새벽에 축구 중계 봤구나?

남학생 : 응, 그래도 우리 팀이 이겨서 기분은 좋아.

여학생 : 나도 뉴스에서 봤는데, 경기가 조금 지루했나 보더라.

남학생 : 전반 초반에 넣은 한 골을 끝까지 지켜서 이겼거든. 그래도 이겼으니 됐지, 뭐.

여학생 : 나도 우리 팀이 이겨서 좋긴 한데, 경기 내용은 맘에 들지 않아. 올해 감독이 바뀌고 난 뒤에 우리 팀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그래. 지난번에도 30분이나 남았는데, 경기를 수비 위주로 운영하고, 고의적으로 반칙을 해서 경기 흐름을 끊고. 그런 건 맘에 안 들어.

남학생 : 그래, 그건 좀 아쉽지. 하지만 선수들은 이기려고 축구를 하는 거고, 또 팬들은 이기는 걸 보려고 축구장에 가는 거잖아. 수비 위주의 경기를 하는 거나 상대 선수가 다치지 않을 만큼만 반칙을 하는 것도 다 이기기 위한 작전의 하나라고 봐.

여학생 :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수비 위주로 경기를 하다 보면 팬들이 지루해 하잖아. 그리고 반칙도 작전의 하나라고는 하지만, 경기 흐름을 끊고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바람직하지는 않아. 지난번 감독은 비록 지더라도 화려한 공격 축구를 보여 줬잖아.

남학생 : 맞아. 그때는 한순간도 경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 하지만 경기 내용이 그렇게 박진감이 넘쳐도 결국 이기지 못하면 힘 빠지더라. 뭔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느낌이랄까?

여학생 :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냐.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경기 내용이 좋아야 팬들을 축구장으로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거지. 팬들은,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보여 주는 다양한 기술이나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려고 축구장에 가는 거잖아. 그게 진정한 팬이기도 하고.

남학생 : 팬들이야 당연히 그런 거 보고 싶어 하지.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기는 거야말로 팬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라는 거야. 그리고 진정한 팬이라면 그냥 구경만 하기보다는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지. 왜, 경기장의 팬들을 열두 번째 선수라고도 하잖아?